

“사도 바울의 한가지 소망”

사도행전 19:21-34

사도 바울의 3차 전도여행은 에베소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에베소에서 두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령의 침례를 베푼 사건이고, 또 다른 하나는 두란노서원에서 제자훈련을 시킨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정작 성령을 알지 못했던 이들에게 바울이 안수함으로 인해 열두명의 사람들이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한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열두명의 사람들을 두란노서원이라는 장소에서 집중적으로 2년간 제자훈련을 시키게 됩니다. 그 결과 많은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은 사람이 많고 적음의 문제에 따라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고 해도 말씀으로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전혀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고, 적은 소수라 할지라도 말씀으로 훈련되고 무장되어 있다면 놀라운 기적과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행 19:20)**

말씀에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훈련은 우리 마음 속에 힘을 불어 넣어 줍니다. 그리고 그 힘으로 우리 인생의 부흥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2년 뒤에 사도 바울의 마음 속에 한가지 소망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로마를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고 할 수 있는 로마를 보고 싶은 것이었습니다.

**“이 일이 있는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행 19:21)**

그가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새로운 세계, 로마에 대해 눈을 뜨게 된 것입니다. 마치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인해 진정한 복음에 대해 눈을 떴듯이, 이제 로마의 영혼들을 향해 눈을 뜨기 시작한 것입니다.

성령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한가지 특징이 있는데, 바로 비전을 발견한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눈을 뜨게 되고, 이제까지 발견하지 못한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다고 하면서, 또 성령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온 열방과 세계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했다면 한번쯤 우리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성령 받은 열두명의 사람들을 말씀으로 훈련시키자, 그 소수를 통해 복음이 왕성하게 전해지게 되었고, 그 영적 부흥으로 인해 에베소 지역에 큰 소동이 일어나게 됩니다.

당시 에베소에는 아데미라고 하는 이단 신상을 만들어 파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신을 위한 축제가 오월에 있는데, 그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신상을 사가기 때문에 이들은 부유한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로 인해 발생한 영적 부흥으로 인해 이 아데미신상이 팔리지 않았고, 이들이 망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 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의 위엄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행 19:27)**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모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하기를 두 시간이나 하더니” (행 19:34)**

에베소의 사람들에게 분란이 일어납니다. 그들은 허둥지둥거리며 모이기는 했으나, 그들 중에는 왜 모였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정도로 사분오열됩니다. 단지,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여” 라고 허공을 맴도는 외침만 내지를 뿐이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메시지를 한 가지 배웁니다. 그것은 사도바울이 두란노서원에서 2년간 소수의 사람들과 집중적으로 했던 이 말씀 훈련이 강력한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고 영적으로 잘 훈련된 소수가 도시 전체의 뿌리를 흔들만큼의 막강한 영향을 주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교회의 규모나 크기는 그리 중요한 기준이 되지 못합니다. 오히려 영적 영향력을 지닌 헌신된 일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존재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한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몇 년 다녔느냐, 집사냐 권사냐 장로나, 목사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헌신되었는가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일주일에 한번 말씀 듣고 교회의 영적인 흐름을 함께 이해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의 성도라고 한다면, 교회의 공예배에 함께 참여하여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앞에 마음을 하나로 모으고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주시는 영적인 방향을 향해 함께 나아갈 때, 강력한 교회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주일 예배만 많이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주중의 여러 공예배에도 많은 성도님들이 함께 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교회는 그 존재의 목적을 잃어버리게 되면 하나님께 책망을 받습니다. 에베소 교회가 칭찬받을 만한 많은 사역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 말씀에 그들이 책망받았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왜 책망을 받았을까요?

**“회개하라 그 첫사랑을 어디서 잊어버렸는지를 회개하라” (계 2:4)**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는 더 이상 교회의 역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그 감격과 은혜의 눈물이 말라버린다면, 형식적 신앙행위만이 남을 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안정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헌금도 많이 들어오고, 좋은 성도들과 함께 많은 사역들을 건강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일수록 우리가 혹시 예수님을 처음 만났던 그 첫사랑을 잊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깨어서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가 많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지만, 그 첫사랑의 기쁨이 사라지고 맹목적으로 사역을 감당하고 있다면, 지금 현재 터키에 황량하게 남아 있는 에베소 교회와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게 될 것입니다.

## 나눔의 시간

1. 소수의 그리스도인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력이 전달되었던 모습을 보거나 경험 하셨다면 함께 그 경험을 이야기해 봅시다.
2. 에베소 지역 전체에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도시 전체를 뒤흔든 이 사건이 어떻게, 무엇으로 인해 가능했는지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밑줄 부분 참고)
3. 고통이 주는 '깊이'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 고통이 주는 '의미'라고 했습니다. 고난이 도리어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던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4. 오늘 말씀에서 내 마음에 가장 와닿았던 부분이 무엇인지, 또 그것을 통해 새롭게 다짐하거나 결단한 것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그런 의미에서 때때로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고난이 오히려 귀한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안정적이고 평탄하다면, 우리는 우리의 신앙을 점검해 볼 여력을 가지지 못하게 됩니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시 119:71)**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게 만드는 계기가 된다고 시편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고난을 통해 우리는 말씀 앞으로 나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게 되는 기회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아이를 낳아 보신 경험이 있으신 성도님께서 맹장 수술을 하셨는데, 그 분께 아이를 낳는 고통과 맹장이 주는 고통 중 어느 것이 더 고통스러운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그 성도님은 “맹장이 주는 고통이 더 큼니다. 왜냐하면 맹장 수술은 의미 없는 고통이지만, 아이를 낳는 고통은 곧 나의 아이를 만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는 고통이기 때문입니다.”

고통의 깊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고통이 주는 의미가 중요합니다.

이 세상에 고난이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의미없는 고통이 되겠지만, 그것을 통해 사명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말씀앞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된다면, 그것은 의미있는 고난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 많은 고난과 어려움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말씀으로 훈련시킨 소수의 사람을 통해 에베소 지역 전체에 엄청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었듯이, 우리 성광교회도 외형적으로 크고 대단한 것이 없다 할지라도 잘 훈련되고 헌신된 성도님들을 통해 이 지역 사회에 영적으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소망합니다.